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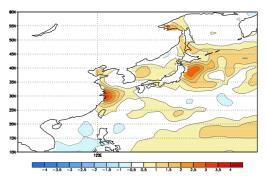
이상기후 감시 Update

기상청 기후예측과 http://www.km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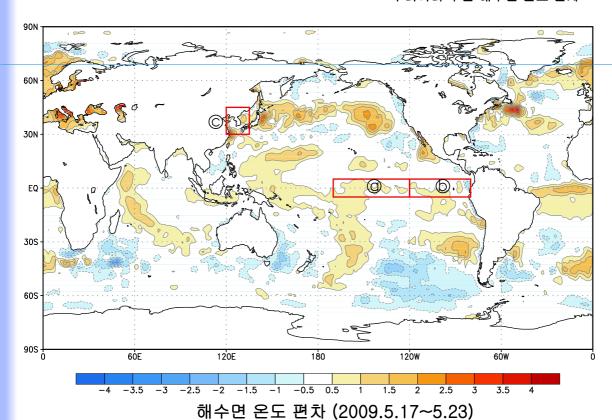


해수면 온도 현황

엘니뇨 감시구역(@: Niño 3.4, 5°S~5°N. 170°W ~120°W)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5℃ 높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열대 동태평양 (ⓑ: 5°S~5°N, 120°W~80°W)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2℃ 높은 상태를 보이며 우리나라 주변(ⓒ: 30°N~45°N, 120°E~135°E)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7℃ 높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 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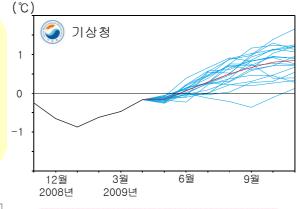
기상청 웹진 '이상기후 감시 Update'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후예측과 (cl pre@kma.go.kr)로 구독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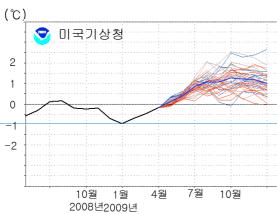
엘니뇨 / 라니냐 예측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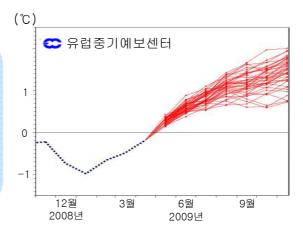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은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가 2009년 여름철에 평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 하고 있음





미국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은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가 2009년 여름철 동안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유럽중기예보센터 엘니뇨 예측 모델은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가 2009년 여름철에 평년보다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따른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온도는 점차 상승하여 2009년 여름철에는 평년보다 다소 높은 상태를 보일 것으로 예측되었다.

세계의 기상재해 (2009년 5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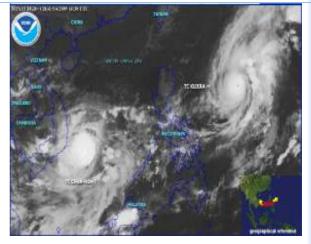


◈ 태풍

올해 첫 태풍인 '구지라(Kujira)'가 필리핀 동부를 강타하면서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33명이 숨지고 이재민이 2만 3천명 이상 발생했다(5일). 3일에는 태풍 '찬홈 (Chan-hom)'이 발생해 6일 최대 풍속이 44m/s에 이르렀다. 이 태풍은 마닐라를 포함하여 필리핀 북부 지방에 호우를 내렸고 산사태가 발생해 2만 3천여 채 이상의 가옥이 파손되고 40만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43명이 사망했다. 한편, 초대형 사이클론 'Aila'가 뱅골만을 강타해 방글라데시와 인도에서 120여 명이 숨지고 수십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27일)

◈ 호우/홍수

미국에서는 강력한 폭풍우로 버지 니아주 서부에 많은 비가 내렸다. 이 폭풍우로 홍수가 발생하여 300여 채의 건물이 파손되고, 6명이 사망 했으며, 버지니아주 서부의 6개 군에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었다(8일). 13일에는 미주리주 컥스빌 지역에 폭풍우로 인해 30~40여 채의 가옥이 파손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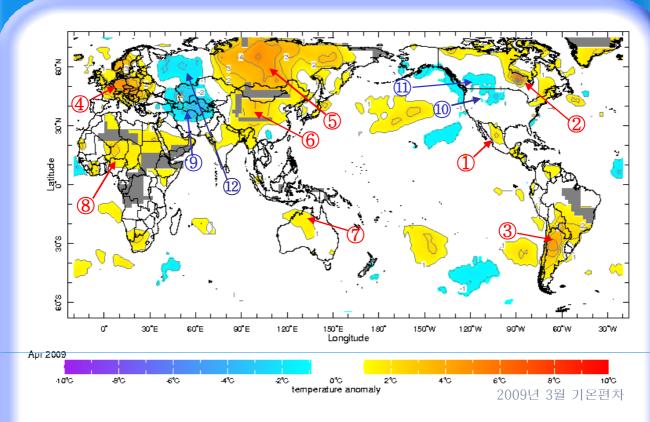


태풍 '구지라(Kujira)'와 '찬홈(Chan-hom)' 사진출처: 미국기상청(NOAA)

사이클론 'Aila'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인도 사진출처 : 로이터(Reuters)

세계의 기온현황 (2009년 4월)





2009년 4월의 전지구 월평균 기온은 평년값(13.7℃, 1901~2000년)보다 0.59℃ 높았으며, 이는 1880년 이래 <mark>다섯 번째 높은</mark> 기온이다. 반구별 월 평균 기온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평년보다 각각 0.64℃, 0.53℃ 높았다. 우리나라의 4월 기온은 평년(1971~2000년, 12.0℃)보다 0.6℃ 높아 1973년 이래 열세 번째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 고온

멕시코 (①), 캐나다 동부 (②), 남아메리카 남부 (③), 유럽 (④), 중앙러시아 (⑤), 아시아 동부 (⑥), 호주 북서부 (⑦), 아프리카 북서부 (⑧) 등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높은 기온을 보였다.

☀ 저온

아시아 서부 (⑨), 미국 중북부 (⑩), 캐나다 남부 (⑪) 러시아 서부(⑫) 등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낮은 기온을 보였다.